《이현상 평전》의 저자 안재성

인간에 대한 사랑 품은 혁명가의 정신 되살리다

남부군 총사령관이었던 이현상은 빨치산의 전설적인 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해방 전 일제치하에서 12년간의 옥살이를 겪었고 이후 조선공산당 재건에 가담, 남로당 연락부장, 간부부장을 맡으며 활동하다가 미군정에 의해 공산당 활동에 제약을 받자 월북했다. 1948년 다시 서울로 내려온 후 빨치산투쟁을 위해 지리산에 투신한다. 그러나 남과 북으로 분단된 한국 현대사에서 그는 잊혀진 인물이 됐다. 식민지 국가의 주권 회복을 위해 일본, 미국 등 외세의 침략에 저항해 일생을 바친 한 인간의 삶은 이데올로기와 분단의 현실에서 오래도록 배척되고 왜곡된 채였다.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이현상의 생애를 객관적 시각으로 재조명한《이현상 평전》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한 인간의 삶이 내포한 진정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저자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장편소설《파업》으로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후《경성트로이카》《이관술 1902~1950》 등의 전작들을 통해 일제 말기의 독립운동가와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삶에 천착해 온 작가 안재성 씨는 그 자신이 노동운동가였기에 이현상에 대한 평가가 올바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음을 피력했다.

"출간 전에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현상의 삶을 빨치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제 노동운동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외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보수파들까지 나서서 격려와 질타를 보내시네요. 어떤 입장이든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이해할 만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벽 넘은 인간의 삶 조명

그는 책이 나온 직후 보수파들의 강경한 지적을 받으면서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양분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의 그늘을 목도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현상의 정치적 노선을 가려내는 평전이 아닌 한 인간의 삶이 추구했던 이상의 근간은 '인간 존엄성 회복' 에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현상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남한에서 20년 넘게 항일 운동을 하고 해방 직후에는 친일파들이 재집권과 기득권 세력들이 남북을 분단시키는 것에 저항해 싸웠지만 남한의 주류 역사는 그를 반란군 빨치산으로만 매도하고 있고, 같이 5년 동안 빨치산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전쟁 후 남로당이 숙청되면서 이현상도 남한 출신이라면서 격하 운동을 심하게 합니다. 하수복과 연애했다, 총사령관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내버려뒀다 등 사소한 트집거리를 만들어 온건주의자라면서 비판하거든요. 그가 죽은 후에도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실상 안 씨는 여순반란 사건에 대한 글을 쓰고자 자료를 수집 중이었다. 하지만 남한 군경과 반란군에 의해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됐고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은 좌익과 우익의 입장에서만 사건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는 이현상이라는 인물을 만났다. 지리산 생존 유격대원의 한 마디가 안 씨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현상 선생님은 여순사건을 봉기나 항쟁이라고 하지 않고 당적 죄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취재를 하며 이현상에 대한 재조명이 더욱 필요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안 씨는 그날로 빨치산의 생성 이유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이현상은 무엇을 했으며 그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마음먹었다.

충남 금산군 군북면 와부리에 있는 이현상의 생가. 옛집은 사라지고 새로 지은 집도 버려진 지 오래다. 이씨 일가는 외부리 일대는 물론, 공주와 무주에도 꽤 넓은 농토를 가진 지주로서 부자 3명이 면장을 한 유지였고, 워낙 인심이 넉넉해 널리 존경받았다. 주민들이 아버지 이면배를 기려 세운 공덕비는 지금도 남아있다.

"집필기간은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기초자료들은 이미 2000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실 이현상은 말이 없고 에피소드를 안남겨서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으니 내가 굳이 안써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아쉬운 것은 가족들이 모두 북한에 있고 측근 중 생존자들이 없어서 증언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이죠."

취재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소개해 준 빨치산 생존자들의 증언은 안 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사람, 이현상 선생의 아이를 낳았던 하수복 할머니라면 그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었겠지만 그간 월간지들의 황색 언론식 보도에 힘들어한 할머니는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평양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현상의 사진

共匪總頭目、李鉉相射殺

十八日下午智異山無名高地서

完全掃蕩도 在遠

治安局서 休戰後殘匪動向言及

이현상의 죽음을 보도한 1953년 9월 동아일보 기사. 웃통을 벗은 채 죽어 있는 이현상의 얼굴에 코밑수염이 보인다. 그의 사신은 방부처리가 되어 20일이나 끌려다니며 전시되다가 토벌대장 차일혁에 의해 섬진강변 모래사장에서 화장되었다.

노동 운동의 근본 의식 제대로 알려야

안재성 씨는 궁극적으로 이현상이라는 인물을 통해 일제하 노동운동과 항일운동의 정신을 전하고자 했다. 총 3부로 구성한 이번 책에서 그가 가장 밀도 있게 다룬 부분도 바로 그것이었다.

"일제 시대의 노동, 항일운동의 자료라고 하면 정부 문서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모아놓고 보니 참 지루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재판기록들도 단순하고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하기에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작가로서 답답했습니다."

그에게 노동운동은 소설이나 다큐 또 이번 책과 같은 평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기본 주제이다. 그 역시 노동운동에 10년 이상 헌신했고 이관술, 이재유 같은 일제 시대 운동가들의 삶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밝혀내는 작업이야말로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물질, 정신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권익을 높여보자는 일입니다. 대개 노동운동가들은 자신의 궁핍과 필요에 의해 투쟁을 했지만 일제하 운동가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타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소중한 정신을 알리고 싶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주제의 무게감을 넘어 작가는 이번 평전집필이 조금 딱딱하고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했다. 혹자는 책에 평전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지만 작가 자신은 특별한 기준보다는 위인전이나 평전이란 사실에 근거한 작가의 자유기술 능력에 따르지 않을까 여긴다 말했다.

최근 그는 리얼리즘 작가들의 결속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리얼리즘 작품이 소외당하는 현상이 비단 독자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자각에서 시작됐다.

"민중, 사회 역사 문제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없고 기존 작가들은 한계를 느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서사적인 시 또는 사회적 글을 많이 쓰자는 생각으로 100여 명의 작가들이 모여 동인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게을렀던 점을 반성하고 토론을 통해 글을 쓰는 데 서로 도움을 주고 받자는 목적으로 만납니다."